

소멸 위기의 농촌마을 살릴 해법은?

충남연구원
—
정석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1. 선정 배경

1) 농촌 마을의 소멸 위기 현실화

- 충남의 농촌 마을은 인구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로 한계마을¹⁾이 증가하면서 마을 공동체 기능이 붕괴하고, 마을의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 특히 서천군은 충남에서도 한계마을 비율이 매우 높으며 타지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7년도 기준 316개 마을 중 10%인 32개소가 한계마을로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연구원과 서천군은 2018년 한계마을 실태 분석 및 유형별 정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서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 한계마을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서천군 한계마을 방지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한계마을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와의 지속적인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함
- 한계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계마을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한계마을 유형별 정책 방향 수립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마을의 소멸 위기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1) 마을 인구가 50명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고령화율 50% 이상인 마을을 의미함

2.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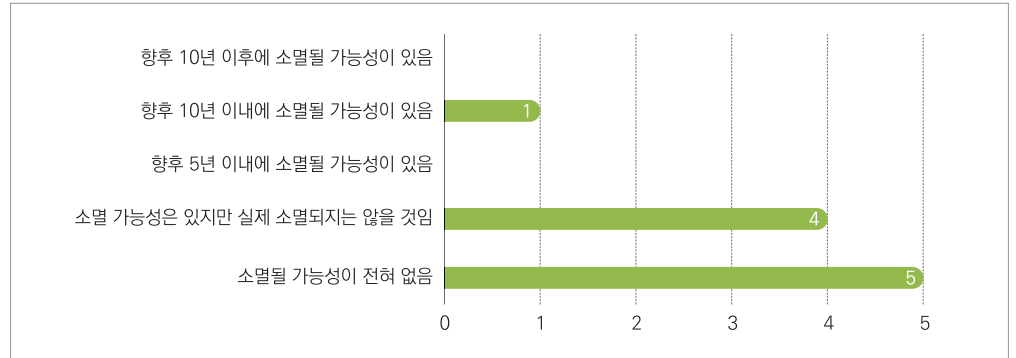
1) 서천군의 한계마을 대응 사업 추진 현황

- 서천군은 2018년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 분석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한계마을 현황 및 기준 설정, 사업의 기본 방향과 세부 사업을 수립함
- 서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한계마을 지원 사업은 한계마을 대상 주민들과 워크숍 및 교육을 통해 공동체 강화 유도 및 행정서비스 소외감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함
 - 주민역량 강화 교육(갈등 해소, 한계마을에 맞는 마을 조직도 및 마을규약 정비)과 환경, 생태 관련 교육 후 마을 맞춤형 소액 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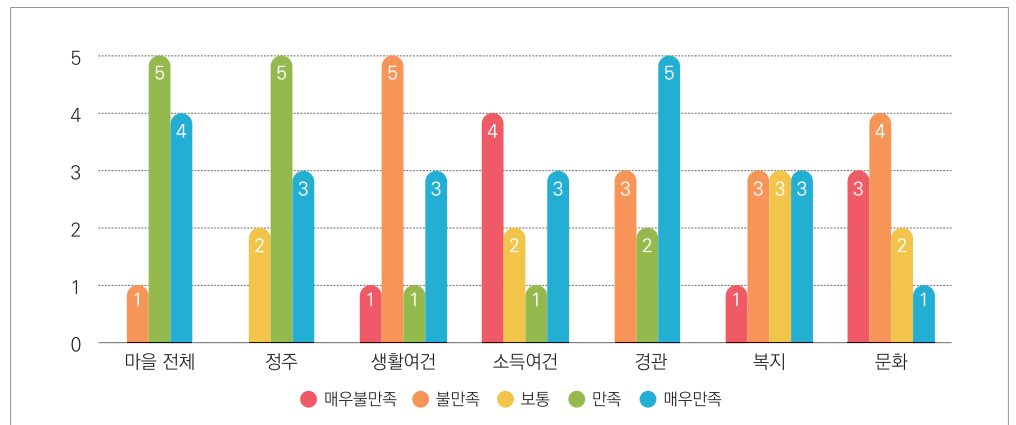
2) 충남연구원 연구 및 현장 활동

- 충남연구원 농촌 분야 연구진은 2013년부터 국내 최초로 ‘한계(限界)마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2013년 ‘농촌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 정책 기초연구’ 전략과제 추진을 통해 한계마을 개념 정립과 유형화, 주민 의식조사를 통한 한계마을 형태별 정책 방향 제시
 - 2014년 ‘농촌지역의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한 마을 재편 방안 연구’, 2018년 ‘과소지역 농촌 마을의 공간적 재편에 관한 현장 연구 및 정책과제’를 전략과제로 추진하여 농촌 마을의 공간적 재편의 적용 가능성 연구
 - 2018년 현안과제 ‘서천군 한계마을 정책 도입을 위한 주민 의식 조사’, 수탁과제 ‘서천군 한계마을 실태 분석 및 정책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한 서천군의 한계마을 주민의 의식조사와 한계마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동체 정책 방안 수립
-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한계마을의 활성화 정책의 실현 여부 및 정책 방향성 수립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서천군, 서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018년도 한계마을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한계마을 33개 중 4년간 인구 변동률이 심하고 고령화율이 높은 7개 면 10개 마을²⁾을 선정함
 - 2022년 4~5월에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조사단과 함께 마을 리더(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마을별 5명 내외)를 대상으로 일반현황 및 공동체 실태 조사, 마을 소멸 및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마을 주민에게 마을 소멸 여부 및 생활 만족도, 빈집 및 건축물 변화를 조사
 - 마을 소멸 여부 조사 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공동체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하지만 10개 마을 중 9개 마을이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함
 - 마을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마을 전체, 정주 여건, 생활 여건, 경관 등은 ‘보통’ 이상 만족, 소득 여건, 복지는 과반이 ‘불만족’, 문화 만족도는 대부분 ‘불만족’으로 응답함

2) 화양면 진목리, 기산면 수출리, 한산면 토산리, 단하리, 마산면 선동리, 시초면 와룡리, 태성2리, 문산면 금북1리, 수암2리, 판교면 마대2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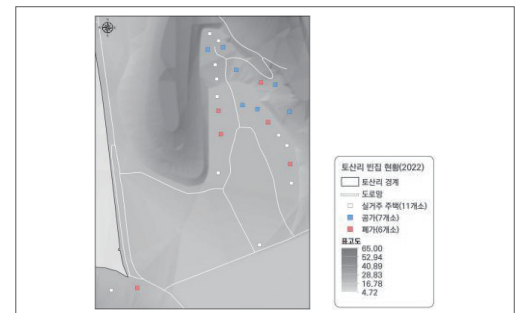


마을 소멸 여부



마을 만족도 현황

- 10개 마을 중 공·폐가 비율이 높은 토산리는 총 24개 주택 중 실거주 11개, 공가(거주·활용 가능) 7개, 폐가(거주·활용 불가) 6개가 존재하고 있음. 지자체 사업으로 폐가 정비 또는 철거를 추진 중이나 소유주 자녀들의 반대로 방치되어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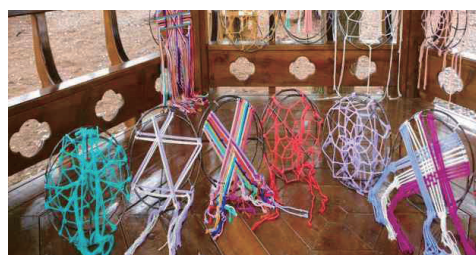


서천군 한산면 토산리 주택 활용 현황

3. 마을위기 극복 사례

1) 보령시 천북면 학성2리

- 외부인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환경정화의 날 운영, 꽃밭 조성 등을 통해 쓰레기 투기 근절 및 폐쓰레기 활용 '업사이클링' 악기 제작으로 제8회 행복농촌 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분야 금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함



2)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 큰 마을이었던 유계리(현재도 300명 거주)는 과거에 만들어진 창고들이 유휴시설화 되어 있음. 청년회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이 마을 유휴시설(미곡창고, 새마을창고)을 직접 수리하고 주민교육 및 회의공간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 중심 공간으로 활용 중



4. 정책 과제

1) 충남도내 한계마을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마을 유형별 정책 방향 수립

- 정기적인 한계마을 실태조사와 분석을 추진하여 마을 현황과 특성 파악 및 모니터링하는 체계 수립
- 실태조사를 통한 한계마을의 '재생', '재편', '소멸' 분류를 통해 유형별 정책 방향 수립
 - 폐촌 직전 또는 보존 가치가 있는 한계마을 대상 마을 기록화 사업을 통한 마을 전경, 자연환경, 건축물, 인물, 주요 길 등을 포함한 삶의 공간 전반 기록

2) 한계마을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농촌공동체 재생지원단 운영
 - 마을 조사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역 청년 및 귀촌인,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 활동가(10명)를 모집하여 현장 밀착 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
 - 관계 인구, 청년 대상 마을 조사 및 모니터링 등 활성화 사업 지원단 운영 및 지역 정착 기회 제공
- 한계마을 지원 조례 제정('23년)
 - 한계마을 관련 정책(유휴시설, 유휴지 관리 및 활용, 마을 경관 개선, 재생지원단 설치 등)의 효율적 추진 근거 마련
- 도농 상생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마을 역사 아카이브 구축: 한계마을 조사 결과 정리, 마을 사진기록화, 마을 역사 정리를 통한 정책 기초자료 활용
 - 출향인, 청년 연계 관계 인구 맺기 공간제공을 통한 마을 방문 및 이주유도

CNI정책현장은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정책연구와 관련된 현장 중심의 문제 발굴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하는 시의성을 중심으로 한 월간 브리프임